



한국뇌연구원
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

보도자료

힘내라-대주정북
힘내라-대한민국

‘20.05.21(목) 석간(온라인 ‘20.05.21(목) 오전 9시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자료문의) 인지과학연구그룹 이찬희 선임연구원(053-980-8427, chanylee@kbri.re.kr)

종양 치료를 위한 체내 전기장 분포 해석기술 이전

- 종양세포 위치를 타겟으로 하는 전기자극을 통한 암 치료 기대

- 한국뇌연구원(KBRI, 원장 서판길)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인체 내 전기장 분포 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벤처기업 (주)필드큐어에 이전한다고 21(목) 발표했다.
- 금번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한국뇌연구원은 (주)필드큐어에서 정액 기술료를 받게 된다. 이 기술은 인지과학연구그룹 이찬희 박사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, 설립 이후 다섯 번째 기술이전이다.
- 기술의 핵심은,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해 인체 내 전기장 분포를 계산하여, 종양세포가 위치한 정확한 지점에 특정 세기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이를 통해 종양세포에 전기장이 효율적으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암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.
- 한국뇌연구원 이찬희 박사는 “인체 내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파악하고 전기장 분포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”며 “보다 정밀한 자극을 줌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